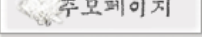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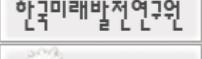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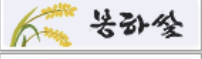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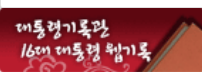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말과 글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조회수 : 130867
등록일 : 2009.03.19 16:32

아래의 글은 회원 추천 글 1235번에 달린 총평 글입니다.

skkim4980@ 2009.03.19 01:15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지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나는 중산층입니다.

(약간의, 여유로 남편은 가끔씩 골프를 하고 나는 헬스를 즐기며 또한 약간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니.....)

중3의 아이는 지금까지 학원에 의지한 적은 없지만 중상위를 맴돌며

스스로 공부법을 익히고 있으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명박정권의 서민 복지정책에 대한 쥐꼬리 혜택은 나를 포함하지 않으니 목뿔 이유없으며

아이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면 현정권의 사교육 정책을 은근히 반기고

평준화를 달가워 하지 않는 심리가 제겐 있습니다.

대운하???? 미디어법???? 민영화????.....

이것들이 통과되어 당장의 현실로 이루어 진다 해도 나의 가정과 생활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미리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저또한 현정권의 모든 정책에서 너의 친절한 법의 해석 없이도

앞장서서 그들을 두둔하진 않더라도 침묵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사의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서 저는 가장 밑바닥의 생산자 계층은 아닐겁니다.

나의 밑에서 나와 나의 상층부를 지탱해 주는 그들은 나를 대신해 힘든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며,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좀더 편안한 일을 뽐내 듯 할 수 있으며

가끔은 내가 떠받고 있는 상층에서 떨어뜨리는 빵부스러기를 짹짜게 먼저 낚아 썰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분명 난 그들 보단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순하고 무지한 그들이 서서히 병약해지더니 죽어 갑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이상 생산자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꾸만 나의 위치는 불안한 흔들림으로 밑바닥을 향해 내려 앉고 있으며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이젠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몫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막다른 좌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약간의 사치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상층부에선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공정한 몫을 나누기를 거부하며

그들만의 최대한의 삶의 질과 무한대의 사치를 즐기려 합니다.

밀바닥이 갈라지고 무너짐으로써 전체의 구조가 위협에 직면했지만

우리의 마땅한 요구와 권리는 난해한 법의 거대한 망에 걸려 불법으로 몰리고 감시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의 서로 다른 희망가를 불러선 안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권력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법의 논리와 해석으로

대중이 원하는 가치와 방향에 족쇄를 달려 해서는 아니되는 거지요.

-끝-

이 글을 읽은 저의 느낌입니다.

시민적 양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작은 행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을 상하고, 분노하는 사람, 지난날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 듯 싸움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직업 선수가 되었고, 대표선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자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라는 안목으로 보면 승패라는 것이 분명한 것도 아니거니와 정치에서의 승부라는 것도 조금만 길게 보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폭과 깊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선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싸움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skkim4980@님이 그런 분이길 바랍니다.

이 글만 좋은 글이냐고 물으시는 분은 안계시겠지요? 우연, 인연,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122개

아주르 2009.03.19 16:34

맙소사....

산바다강 2009.03.19 16:34

안녕하세요.....오 1등이다.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주르 2009.03.19 16:34

안녕하세요...~인사를 먼저해야죠..너무 놀래서요..이런 기분이군요..!

미국농꾼 2009.03.19 16:34

참 좋습니다...

내마음 2009.03.19 16:35

우와 ...다시 읽어봤습니다 ...또 추천

산비둘기 2009.03.19 16:39

인간 노무현, 자연인 노무현...
이런 글에 감동하시는 당신...
어쩔 수 없이 당신은 한국판 데이빗 소로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하가는길1 2009.03.19 16:40

대통령님 !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한시바빠 뵈수잇길 바랍니다~~건강 하십시오~

아울러 125501번 미국농꾼님께선 올린신 동 영상 대통령님에게 추천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서 2009.03.19 16:43

훌륭한 싸움은
훌륭한 평화 전도사보다 못났겠지..

미국농꾼 2009.03.19 16:45

나도 노짱님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싹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꺼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자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거봉포도 2009.03.19 16:49

대통령님의 추천글 잘 보았습니다 건강 하십시오

연화시중 2009.03.19 16:52

노짱님을 뵈듯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듯, 행복감 충만합니다.

찬밥연대 2009.03.19 16:53

제가좋아하는 skkim4980@님글을
노공님도 잘 보셨다니 더 기쁩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노!무!현!짱!

다불어 2009.03.19 16:58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이런 글을 발굴해서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노공님이 다 보시기는 어렵겠고, 모니터링동회에서 노공님이 추천하면 좋은 글을 올리고 노공님이 보시고 추천해주시면 많은 회원들이 읽어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공님 바쁘시겠지만 시민주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요구만 드려서 지송합니다. ~☆.☆~

김정난 2009.03.19 17:00

저는 언제 1등 달아봐요??
에휴휴

얼음공주 2009.03.19 17:01

추천해주신만큼 잘 읽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

skkim4980@ 2009.03.19 17:02

감사합니다.^^*

무현동상 2009.03.19 17:03

허거덕, 영수꿀님글을 대통령님이?
영수꿀님 님 부럽당^^ 퇴근할려면 1시간 남았네여 ㅋㅋㅋ
참! 대통령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추신 : 대통령님의 펄글 우와 다시 생각해도 경이적입니당^^

지금/여기 2009.03.19 17:03

안녕하세요? 건강하신거죠?
전 지금 들어 왔는데 바로 대통령님과 랑테부가 이뤄지네요.음, 이건... 맘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해~

미국농꾼 2009.03.19 17:05

노짱님은 다른 여러분들의 글들도 하나 하나 꼼꼼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만허공 2009.03.19 17:05

권력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법의 논리와 해석으로 대중이 원하는 가치와 방향에 족쇄를 달려 해서는 아니되는 거지요.(2) 공감!백번입니다.

목은김치 2009.03.19 17:10

하나를알면 열을헤아릴것이다 노공이산님의 글또한 우리 가슴깊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항상 힘을 주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늘색 꿈... 2009.03.19 17:13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렇지 않겠다..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댓글을 읽으면서요..

포터 2009.03.19 17:20

어차피 좌표가 응원석일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목이 터져라 응원할 맛이 나는 대표선수가 마냥 그리울 뿐입니다. 노짱님.. 건강하십시오.

내서사람 2009.03.19 17:35

반갑습니다.일단 추천 올리고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대실골 2009.03.19 17:36

뵈고 싶습니다.
좋은 글 추천보다는
사람이 그렇다는 느낌이 더 다가 옵니다,
대통령님,

하늘an바람 2009.03.19 17:37

좋은글 잘 보고 다시 생각 하게끔 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바닷가에서 2009.03.19 17:47

존경합니다.

didfks 2009.03.19 17:47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보니, ㅎㅎㅎㅎ
댓글보는 재미가 이런거구나, 새삼 느낍니다.
역시 노짱님, 인기가 최고예요.
어디서 이리오셔서 댓글을 하시는지....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전,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고 사왔어요. ㅎㅎ

좌과 2009.03.19 17:48

글쓴이의 고민을
저 또한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kongju 2009.03.19 17:49

글을 읽고 보니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진후라이 2009.03.19 17:54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선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싸움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우격다짐..너머 공부하고..나의 다른편도 감동적으로..뉘아 버리자.ㅋㅋ
요근래 봉하 추천글에 올랐던 그 설왕설래의 타이틀..속의 생각이 노공이산님의 기본노선이다...제 맘대로 확신입니다.
찬찬히 정독해 보니..마음을 적시는 한 중산층의 고백이군요.
좋은 댓글을 발췌해 보여 주시고 표현해 주신 두분께 고맙습니다.
포근..하고 행복하다..이렇게 우리 같이 있으니까.

고물버스 2009.03.19 18:05

건강하십니까?..

저도 선수의 한사람입니다만! 위 글에서도 나온말이지만 피라미드의 하층구조에서 싸울때와 그위로 올라서면 설수록 싸움의 본질이 달라지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조심을버리고 최상층에서 싸울때 그들은 자신의 심념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것을 중중보게 됩니다!

오늘은청춘 2009.03.19 18:06

대통령님의 추천글잘보고 또한번 찾아서 보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따뜻한 봄이 오는데 대통령님 마음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급수 2009.03.19 19:01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신의 연대"라는 말이 중요한 가치로 느껴지는 글인듯 합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선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싸움꾼이 아닐까" 라는 말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붕어마니 2009.03.19 19:18

엇!
글 하나 글 하나 중복 입니다~~^^

mcsolong 2009.03.19 19:36

건강하시죠,
추천해주신 좋은글 대통령님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같은데요 언제쯤 공지사항을 보여주실 건가요.
"이제 봄이되었으니 여러분과했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x월x일부터"

땅님 2009.03.19 19:39

아고~~
너무반갑습니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이름 석자

tmfg18652 2009.03.19 20:22

잘보았습니다 좋은글입니다

통일 2009.03.19 20:59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권양숙 여사님 ^^

내일 3월20일은 춘분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 힘 내세요 ~~~~~

http://www.koreartnet.com/wOOoII/etc/24julki/24julki_4.html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이다. 추운 북쪽지방에서도 "추위는 춘분까지"라고 했다.

일년 중 춘분에서부터 약 20여일이 기온상승이 가장 큰 때이다. 이때는 습지도 덥지도 않은 난춘(暖春)시기로 일년 중 농부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때를 두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했듯이 동양에서는 이 날을 농경일로 삼고 씨앗을 뿌렸다. 춘분때는 이웃끼리 과중할 씨앗을 바꾸어 종자를 정선한다.

겨울철 얼었다 땅이 풀리면서 연약해진 논두렁·밭두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말뚝을 박는다. 또 천수담과 물이 귀한 논에서 물을 받기 위해 도구를 치기도 했다.

옛 말에 "이월에는 천하의 만민이 모두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라 했다. 이월의 농작업은 대부분 한해 농사의 시작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즉 퇴비만들기, 마늘밭 기름주기, 보리밭 기름주기, 논 의 객토,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관리, 비닐하우스용 고추·참외 파종, 과수의 가지치기, 장 담그기, 고구마 싹 튀우기 등 다 외기가 바빠 정도이다.

pegasus 2009.03.19 21:23

대통령님
자상하심에 제가 sk.님이 된듯으로 감격스러워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도레미쭈마 2009.03.19 21:32

고맙습니다.대통령님!!

참취 2009.03.19 21:57

역시 인간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이길 원합니다....

똥똥이 2009.03.20 00:01

너무 높지 않은 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권력자들처럼 너무 높은 상층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옆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同 시간대를 함께 살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쁩니다.

쟁나라 2009.03.20 03:07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복군 2009.03.20 08:57

오직 한분뿐인 우리민족의 영원한 대통령 조국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님과 설치류 지바귀 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님을 향한 이마 음 지옥이라도 마다않고 가겠습니다

나르치스71 2009.03.20 09:00

skkim4980@님의 이런 좋은글을 보지못했습니다.그걸 또 친절하게 찾아주신 노짱님 감사 합니다. 현실에서 ,생활에서 느끼고 생각 하게 된사실적인 문제들....이젠 우리가 막연히 먼 남의일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위기감이 너무 큼니다. 나의이익에 크게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움을 지속하겠습니다. 좋은글 추천해주신 노짱님과 글쓰신 skkim4980@ 님 감사드립니다.

thomas 2009.03.20 09:18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주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늘에서 정한 시기에 정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당신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였고 그 결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어져 갑니다.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온 세상에.

shWkd 2009.03.20 09:27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사는세상 사이트더욱더 발전하길 항상기원합니다...그리고 춘삼월입니다...이제 뵈수있겠지요.....ㅋㅋㅋ
ㅋ건강하십시오.

변해가네 2009.03.20 10:15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지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라는 물음이 온다면 전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 나 이기 때문에..
봄날 행복하십시오~ 내내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정 온마음으로...

슬발2 2009.03.20 13:48

마치.... 내가 추천을 받은 것 만큼이나... 기분이 좋다.... ^^*

그리고 skkim4980@님.... 좋은 것보다는 쑥스러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웬지 그럴꺼같은... 댓글만 다시는 분께서 댓글로 장외홈런 치셨어요... 헤헤

현재와미래 2009.03.20 18:07

사실 저는 진보나 보수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잘모르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했을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이 되면 좋겠고, 진보든 보수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재임시절에 다음 대통령은 너무 대립적이지 않은 온순한 분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적이 있으셨지요. 저는 그때까지도 노대통령님이 혼자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신지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99%를 위한 외로운 전쟁인지 저는 몰랐었습니다.

1% 국민을 위해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대해보니 이제서야 그 말씀을 하셨을때의 노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알것같았습니다. 선수를 키우는 훌륭한 싸움꾼이 되겠다.

노대통령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웬지 듣드해집니다.

해와빛 2009.03.20 18:35

존경합니다.. 보고싶어요...

산너울 2009.03.20 18:51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곳을 처음 왔을때 그때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땐 올보였었는데...^^
이 글을 보고 또 훌쩍거리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아무것도 안하셔도...함께 계셔준다는것만으로...
저희는 위로와 행복이랍니다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cjsals 2009.03.20 21:19

요즘 노대통령님지나간 영상들을 보면 웨이리 코끝이 시린지...
책임시에 노대통령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남따라 비난했던 제 잘못을 이제서야 깨달아서 그렇겠지요....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요^

지은영 2009.03.22 18:14

늘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들어오지는 못해도, 이 곳에 들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게 낙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답글이라도 달 수 있음에 너~~무~~도 기쁩니다.
역사는 좋은쪽으로 발전을 하나요? 나쁜쪽으로 발전을 하나요?
아이들에게 역사논술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요즘은 많이 헤갈리네요.
점점 계급화...
돈만이 최고가 된 사회에 혼자 격분을 하면서 울컥울컥 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희망입니다.늘 건강하세요.

digna 2009.03.22 21:04

올려지는 글의 내용도 좋지만
감동하게 되는 댓글도 좋은 글이 많습니다.
노짱님의 안목에 또 한번 감동합니다.

조콤파나무 2009.05.23 13:34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떠난 지금 당신이 남기신 한마디 한마디가 피가되고 침이되어 우리를 가르킵니다..그곳에선 편안하시길..그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질 못한 모두를 용서하시길..

wslgkvl 2009.05.23 16:58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떠나셔서 지금 난장판입니다...얼마나 힘드셨으면...
봉하마을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봄이오는 들녘 2009.05.23 18:35

어떡하지요?
대통령님
어떡하지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당신께서 계시기에
그걸로 위안삼았는데...

김주경 2009.05.23 19:26

한사람 한사람 마음에 울리는 소리를 크게 들려주시던
따뜻한 옆집 아저씨같은분이셨는데,

이제 없네요. 저 이사 갈까봐요

비움예찬 2009.05.23 21:11

왜 살아계실때 좀더 맘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이제 이분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더 먹먹해집니다.

빨대1234 2009.05.23 23:23

마음이 많이많이 아파오네요

하르딘 2009.05.24 01:02

살아생전 이곳에 와서 댓글 인사 한번 못드린것이 가슴에 한이 됩니다...
감히 노무현대통령님 흠피를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냄새가 풀풀~ 났던것을 왜 몰랐을까...?
권여사님~!! 울지마세요...여사님의 눈물은 국민 모두의 피눈물이랍니다...
저도 맘이 너무 아파 가슴으로 옵니다...여사님 힘내세요...
오래 오래 우리곁에 남아 주세요...여사님 사랑 합니다...정원 아줌마 올림

이겨낼수있어 2009.05.24 01:04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원합니다

언론과 검찰과 정치세력.... 노무현대통령님의 최소한 권리를 지켜드렸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왜 서거하셨을까요
이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리운연두 2009.05.24 01:33

생전에 여기에 와 불길.... 왜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됩니다. 벌써 그리워집니다.

복별 2009.05.24 02:07

저도 늦게온게 너무 후회되고 ...노대통령님이 보고싶습니다 뵈고싶습니다
이제는 안되겠지만...

드라마71 2009.05.24 03:10

사람냄새나는 공간이 여기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는게 바빠서.... 라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나 봅니다.

이젠 어디서 이런 곳을 찾을까요?

당신께서 가신 자리가 너무 큼니다.

바보같은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평생 어깨위에 걸쳐 놓은 짐을 벗으시고
이젠 당신께서 행복해지시길 빕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바라보다가 2009.05.24 04:26

좀 일찍 찾아뵈지 못한걸 후회하게 만드네요
이렇게 좋은 분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안다는듯 ..
하도 울어서 인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잠도 오지 않네요..

사랑해요 노무현대통령님 2009.05.24 12:36

좀더 일찍 여기 못오게 된걸 후회하네요.. 그럼 저라도 위로 말씀을 드렸을텐데.. 정말 이 홈페이지의 글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울립니다..
..언제 그 환한 미소를 실제로 보고싶었는데.. 이젠 그럴수없게되니깐.. 너무 슬프고 아쉽네요.. 이걸쓰면서도 눈물이 ...TTT.. 왜
그렇게 떠나신것입니까...??.. 정치때문에 힘든사람도있겠지만.. 그렇게 떠나신다면 힘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TTT..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TTT 꿈속으로 와서 대답좀 해주세요..TTT 부디 좋은곳 가시기를 빕니다....TTT

우리아버지 2009.05.24 14:56

보고싶습니다 아버지..

haebalak2 2009.05.24 15:08

건강하세요 ~ 힘내세요 ~
라는 글들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 2009.05.24 17:16

이렇게 국민들 댓글도 찬찬히 다 읽으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중 가장 좋은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가셨나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왜 이제서야 힘든 걸 알았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부디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저희 국민들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슬퍼요슬퍼 2009.05.24 17:36

너무 답답하고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해요

도드람주유소 2009.05.24 21:22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임2 2009.05.24 22:09

대통령중 가장멋있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편히주세요

폴꽃~ 2009.05.25 00:15

이렇게 멋진분을 그동안 혼자 몰래 보구만 간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네요!!!
당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맘아픈유니 2009.05.25 16:29

이글 지금에서야 봅니다...미칠꺼 같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이런분을 지키지 못한 저의 나약함이... 힘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야0706 2009.05.25 19:02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작은 바람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님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되네요. 많이 아쉽지만 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애도함 2009.05.25 21:50

이런분을 몰랐다니.....T

바람아 너는아느냐 2009.05.26 09:18

님의 깊이는 끝이 없네요. 안녕! 노짱

초대감독 2009.05.26 13:18

글들을 읽으며 새록새록 당신을 알아감에 따라 슬픔이 더해짐을 느낍니다...
아니 아쉬움이 더욱 전해짐을...
책임시 많은 지지자들이 당신을 떠나버렸지만 이렇게 황망한 일을 겪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했는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당신에게 지지의 손길을 놓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짐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봉화택입니다 2009.05.26 17:04

진정 서민으로 돌아오셔서 서민을 대하셨네요~그 넓은 가슴 몰라보고 방관자로 살았습니,그러니 지금의 아픔은 그 댓가겠지요?하지만 너무 괴롭습니다.가슴이 터질듯이 아픕니다.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받을수 있을까요?

하늘구름소망 2009.05.27 01:01

흔평을 위에서 부터 차례로 읽어오니..
가슴을 울리네요
이렇게 정성하시던 분께서 오늘날.....안타깝게도 여기에 안게시지만
저는 아직 숨결이 느껴지네요..

영원한노통 2009.05.27 10:30

영원한 나의 대통령 부디 하늘에선 행복하세요....사랑합니다.영원히...

씨앗기움 2009.05.28 00:03

대통령의 퓌클 이런 소박한 분인줄 몰랐습니다.

smilchee 2009.05.28 02:42

처음 소식은 제게나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 당혹스럽고 안타깝지만 했습니다.
전 제 생활에 바빠 간단히 무덤덤하게 넘겨버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은 생각을 할 기회를 주신것 같습니다
프로선수가 되기도 힘들고 대표선수가 되기는 너무나 힘들고
또 이런 죽음의 선택을 하기도....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오
남은 세상은 남은 자들이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는데 바빠서 당신의 죽음도 제겐 지나가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잘 생각하며 꿈꾸셨던 그 세상이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꿈을 같이 꾸며
선수들을 키우고 제 생각 우리 생각을 키워가도록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sulabal 2009.05.28 15:25

대통령님 이런좋은글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무런..
이젠 영영 대답을 들을수 없나보다.. 영원히
그저 하염없이 눈 앞에 물너올만 어렵니다.. 하염없이

날개잃은물새 2009.05.28 16:04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그새 우리는 당신이 너무 그립군요. 떠나시던 길목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셨나요? 외로움에 치를 떨며 끝내 홀홀단신 발걸음 재촉하신 노짱님, 당신이 너무너무 고독하고 어려울때 함께 나누지 못해 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것 같네요. 당신의 마지막 남긴 말씀 헛되지않도록 두번 다시는 분쟁없는 세상이 되기를 마랄뿐입니다. 좋은세상에서 부디 채 누리지 못한 영복을 누리소서.

두메산골뜨락 2009.05.28 17:36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자유도 없습니까? 노대통령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농촌의 주민들과 어울리며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대통령님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슴이 아프네요.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혼만은 영원히 우리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뜨거운촛불 2009.05.28 21:24

왜진작 사람사는세상에 살아보지못했을까..ㅠㅠ
좀더일찍 이곳에와서 흐뭇한 세상을 느껴야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권여사님 저를 이끌어 주셔야합니다..

텍사스방울뱀 2009.05.29 14:04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따듯함이 남아있는 이곳이 진정 사람사는 세상이네요..

능선 2009.05.30 12:54

이제 다신 대통령님 글을 볼 수 없음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네요. 뜻 이어받아 꼭 사람사는 세상이 올 거라 믿어요.

오아시스 2009.05.30 23:48

님의 글이 올라 올때 마다 반가워하는 사람사는 세상 가족 분들의 댓글을 읽으니
당신이 더욱 그리워 집니다.
부디 평안 하소서~!

♥노블리♥ 2009.05.31 05:28

도저히 눈물이 나서 못보겠습니다....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이 편히 잠드소서.. ㄸㄸㄸㄸㄸ

봄햇살 2009.05.31 18:45

지금 옆에 누가 없었더라면 아마 소리내어 크게 울었을거예요.
참느라 힘들어요
뭔가 막 끌어오르는 이것
무엇인지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대통령님!

아도니스 2009.06.01 20:34

아...노짱님!

성터 2009.06.02 03:18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만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바보할배국민 2009.06.03 01:08

어찌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다 저런 것인데...하는 생각을 늦은 지금에서야 하늘에 계신 당신을 그리워하며 하게됩니다.
상.중.하...사라질 수 없는 구조인가 하는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요...형편의 위치와 욕심이 비례하는 현정권의 비열함에 다
시금 통탄하게 됩니다.

하얀비둘기 2009.06.03 17:40

돈없고 양심있는 대통령과
돈많고 야비한 대통령의 엄청난 차이!!!!!!!!!!!!!!
국민은 안다.....

알순아지메 2009.06.05 17:52

이곳에서 대통령님과 교감하셨던 분들이 부럽기만합니다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넉넉한마음 2009.06.06 09:47

노짱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히 잘계시리라 믿습니다 담주에 봉하합니다 7월초에 나이만은 형님하고 형수님이 같이 가자하는데 그때
는 그때고 저는 다음주에 갑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그대의제자 2009.06.08 20:33

뒤늦게 반성문같은 촛평을 쓰려니 부끄럽기 한정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글이 제 맘을 울리고 길을 터주시네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6월 10일에 큰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karen97 2009.06.09 02:42

모두 이런 맘이 아닐까요...정말 저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노짱님도 그러셨어요....
가신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록
더 그럽습니다. 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보이시나요?!

위대한도전 2009.06.09 19:35

하여간 못말리는 대통령이군요.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게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짧은 한 시대를 살다 갔지만 역사는,
이 오고 간 자취를 흔적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대 지도자의 족적으로 기록할 겁니다.
잡초같은 세상에 한 포기 난이요.
放香만 무성한 세상에 진정한 가치의 方向을 알려 주신 분.
당신은 진정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수로왕릉 2009.06.13 09:17

대통령님은 불혹을 넘긴 나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시고 가신분입니다.
나와 가족만 인식하던 내가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해주시는군요...
당신을 역사는 평가할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므로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민주주의의꽃 2009.06.14 23:21

아름다운 사람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의 영웅입니다.

버마제비 2009.06.16 00:19

이러시던분이...이제는 안계시다니...아~ 참말로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미쳐가는 지랄같은 세상...울분이 점점 커져움을 느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아름답습니다 2009.06.17 01:47

바보 노무현님,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선 꼭 뵈 수있겠죠? 사랑합니다!

교대학생 2009.06.18 10:06

대통령님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한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우리의 마음 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충청도 아줌나 2009.06.20 23:04

다시 읽어보니 봉하사저 에 계시는듯 합니다, 님은 그렇게 훌쩍 가시고 아니 계시니 원통합니다, 제가 진짜바보가 되시어 조금만 참으시고 이겨내시라고 했는데, 님이시여 ,,그립습니다, 가족, 친지, 측근, 아름다운 인연들, 노사모 , 참여정부, 또 당신을~~~사랑하는 국민들 어이하라고,~~~다시 환생 하시옵소서,,(0

커피환잔 2009.06.23 00:29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노짱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센스모아 2009.06.23 01:11

승률 90% 넘나드는 변호사로 안락한 삶을 사실수 있었을텐데,
신념에따라 인권 변호사로 가시발길과,
정치인으로 고난의 삶을 사신 노짱!!
가족들이 하고 싶은것도 못했다고 미안해하셨다죠?
보고싶습니다, 많이 보고싶습니다.

일식 2009.07.30 10:06

아무말도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금털강아지 2009.07.30 21:25

메세지 잘 전해 받았습니... 보고 싶습니다...-

손새롬 2009.08.07 18:22

당신의 꿈은 현재 진행형 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 둘씩 이야기 보따리 나눠 드릴게요 ^^

그리운 울노짱 2009.09.05 20:11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 눈물이 안나올줄알았는데..
노짱님의 책 여보나종도와귀를 읽다가 다시금 그리워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눈물이 많이 많이 흐릅니다.
세상사람들이 우리 노짱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짱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유진훈 2009.09.05 21:46

어르신, (오늘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전에 읽었던 기억이 어렵습니다.
열공여행하면서 오늘에야 다시 찾아뵈고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서로 다른 희망가를 불러선 안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권력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법의 논리와 해석으로
대중이 원하는 가치와 방향에 족쇄를 달려 해석은 아니되는 거지요.]

[시민적 양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작은 행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을 상하고, 분노하는 사람, 지난날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 듯 싸움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직업 선수가 되었고, 대표선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자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라는 안목으로 보면 승패라는 것이 분명한 것도 아니거니와 정치에서의 승부라는 것도 조금만 길게 보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폭과 깊이에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선수를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싸움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skkim4980@님이 그런 분이길 바랍니다.

이 글만 좋은 글이냐고 물으시는 분은 안계시겠지요? 우연, 인연,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새겨보면서
넘겨서 못다 이루신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던 꿈
이젠 저희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의 열공여행을 하는
유진훈 올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오늘 다 읽었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너무 깊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만 남습니다. 바보같이..바보같이
어르신에 관련된 책을 모조리 다 읽으려 합니다. 그 깊고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될지는 몰라도.. 너무 사랑합니다.

대통령님~~~~~계속 글 남겨 주셔야죠~~~ㅠㅠ

여기 와서 댓글을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훈훈해 지네요..노대통령님 정말 너무나 그립습니다.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상속에 이곳은 또다른 세계 같아요. 정말 그립습니다..

이 글이 진정 대통령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대통령님을 만난 듯 반갑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이제 다시는 대통령이 이런 글 직접 쓰시지 못하겠네요.
그러나 지켜봐 주세요.
저희들이 정신차리고
님께서 이루어줬던 진보의 미래를 꼭 이루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좋은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좋은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힘집 만들어 조롱하는 세상,
노무현님 지도자로 계실때는 좋은 세상이 가능해 보였는데
그립습니다.

흔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1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19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38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1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01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46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1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49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4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4	노무현	2009.04.07
현재글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67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1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2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03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71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5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297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64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593	노무현	2009.03.04
1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0	노무현	2009.03.01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 무 · 현 · 재 · 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환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최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요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점터 055-344-1005